

館을 設置한 學校의 40.5%이다.

(2) 公·私立을 막론하고 中·高等學校中 圖書館施設을 運營하고 있는 學校는 差는 있을 지언정 豫算이 마련되어 있다.

(3) 圖書增加 豫定數는 極히 적으며 增

加目標를 策定한 學校는 46.9%이며, 거 이 大多數의 學校가 圖書設備에 對한 配慮가 缺如되어 있다.

(4) 圖書增加 豫定量이 目標策定學校 60校에 對해 平均 335卷에 不過하다.

## 濟州道 學校圖書館 現況報告

報告者 吳 萬 壽

五賢高等學校 司書教師

濟州道에 圖書館開館의 氣運이 움트기 始作한 것은 解放 이듬해 當時 國立圖書館에 附設되어 있던 朝鮮圖書館學校를 나오신 許斗久氏에 依하여 道立圖書館의 開館을 目標로 收書를 하기 始作하여 開館을 서둘른中 不幸히 收書保管해 두었던 書庫가 火災로 회진되어 버림으로서 完全히 이 計劃은 좌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 解放後 混亂의 틈바구니에서 發生된 여러가지의 無秩序와 함께 찾아온 濟州道로서는 史上最大의 災難인 4·3事件으로 因하여 모든 文化的 活動은 完全히 停滯狀態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든中 1957年 地方實業家의 寄附로 延坪數 80坪, 座席 135, 장서 2,000餘의 조그만 道立圖書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當初의 藏書構成이 自體의 計劃의 인 構成이 아니고 教育公務員 및 一般公務員들로부터 한卷씩 기증받은 것들이 되어 形便이 없으며 開館以來 每年 充分한 豫算이 마련되지 못하여 제대로 藏書를 備置해 놓지 못하고 있는 形便입니다.

開館 7年이 되는 이즈음도 公共圖書館으로서의 구실보다도 上級學校 進學準備를 하는 受驗生들의 工夫房程度의 所任밖에는 못하는 形便입니다.

다음은 大學圖書館으로서의 이 地方에 唯一無二한 濟州大學圖書館이 延坪數 92坪, 座席 108의 施設을 갖추고 있으나 昨年에 새로 생긴 特殊學科인 教育科까지 있기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施設을 갖추려면 요원한것입니다. 特殊圖書館으로는 濟州道教育研究所 圖書館이 있으나 이것亦是 正常的인 圖書館으로서의 奉仕는 못하고 있습니다.

學校圖書館은 便宜上 이를 私立系學校圖書館과 公立系學校圖書館으로 나누어 兩쪽을 比較해보면 淸 滋味있는 結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公立系 6個中 高等學校의 座席數 302, 藏書數 6,587卷, 豫算額 143,200원에 對해서 私立系 3個中 高校는 座席數 347席, 藏書數 9,887卷, 豫算額 42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單純히 座席數나 藏書數만으로 比較評價할 수

없다 할지 모르겠으나 너무도 큰 差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私立系中·高等學校에서는 圖書館에 對한 關心이나마 갖어 努力하는 反面 公立系 學校에서는 너무도 이 方面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곧 指摘할 수 있는 것입니다.

道內 41個 中·高等學校中 위에서 말씀드린 9個校外에는 거의 圖書館의 形態를 갖춘 學校를 볼수 없으며 101個校의 國民學校中에서 어린이圖書館을 갖고 있는데 가 없음은 섭섭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以上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장 學校와 學生數가 人口比例로 볼때 많은 이 地域이 가장 圖書館에 對해서는 이렇게 荒無地에 가까우나 하는것을 생각할때 教育行政當局이 誠意있는 努力이 傾注되었어야만 할것으로 믿으며 이런 點에서도 早速히 圖書館法이 公布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圖書館의 施設面도 그렇지만 司書教師의 數도 極히 적습니다. 延世大 8週課程 修了者 4名, 梨花女大 8週課程 修了者 2名, 計 6名뿐이며, 唯一한 公共圖書館에도 專門教育을 받은 司書가 없는 形便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1962年 10月

來道한바 있는 崔貞熙女史가 滯道時 道の 親切에 報答한다는 뜻에서 觀光地. 有名한 西歸浦에 圖書館을 세우려고 이-上京하여 도서수집운동을 京鄉新聞에 賴하므로서 京鄉新聞社가 벌린 도서모-운동이 있습니다. 많은 讀者들의 好意. 적지 않은 圖書가 모였는데 그중에서 現共和黨의 朴正熙總裁, 學園社, 學園學會 朴景利, 劉漢徹氏等 여러분들도 是은 책을 보내주시어 精誠어린 이 西歸浦 圖書館이 開館될날도 멀지 않았읍니다. 또하나는 現金知事님의 配慮로 濟州市市立圖書館 市內 五賢高等學校에 示範校圖書館 設立計劃이 推進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62年 6月에는 50名의 國民學校中·高等學校 教師들에 對한 司書教師講義가 實施되었읍니다. 現在로서는 “未開拓의 地”로 남아있는 이 고장에도 圖書館에 對한 좋은 認識이 싹터오기 始作하고 有읍니다. 다음 또 이런자리에서 報告를 드릴때는 오늘보다 낫은 濟州道 圖書館界를 소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 先輩先生님들의 많은 聲援 있어-기 바랍니다.